

##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인지하는 어머니의 양육방식과 식사지도방식의 요인 탐색 및 어머니의 양육방식과 자녀의 식행동과의 상관성

김 미 정

신라대학교 식품영양학과

### Exploration of Maternal Parenting and Child-Feeding Style Dimensions Perceived by Elementary Schoolers and Middle Schoolers and Correlation between Maternal Parenting Dimensions and Child's Food Behaviors

Mi Jeong Kim

Dept. of Food and Nutrition, Silla University, Busan 617-736, Korea

####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how elementary schoolers (n=159, 9~11 years) and middle schoolers (n=176, 13~15 years) perceived maternal parenting style dimensions, both general and child-feeding related, and whether these dimensions are associated with the subject's food behaviors. Th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resulted in a solution of 10 parenting dimensions (reasonable guidance, affection and involvement, achievement expectation, clear behavioral regulation, criticism and anger, overprotection, psychological punishment, harsh punishment, punish by withdrawal of child's privileges, and lack of punishment) and 8 child-feeding dimensions (portion control, restriction, pressure to eat, monitor, undesirable model, desirable model, discourage unhealthful eating, and encourage healthful eating) with 49 and 43 items, respectively. Three parenting styles, authoritarian, permissive, and authoritative, were extracted via a second factor analysis using the 10 parenting dimensions. The correlation analysis indicated that authoritarian style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restriction' and 'undesirable model', while permissive style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encourage healthful eating' in both groups. Authoritative style was strongly associated with all of the child-feeding dimensions except for 'undesirable model'. For food behaviors, the more likely elementary schoolers and middle schoolers perceived their mothers as authoritarian and permissive, respectively, the more unhealthful foods were consumed. The consumption frequency of healthful foods increased as mothers were perceived to be authoritative. More elementary schoolers of authoritative mothers ate meals with parents. Findings suggest that maternal parenting styles and dimensions, child-feeding dimensions, and child's food behaviors are associated. It may be that authoritarian and permissive styles are more detrimental for elementary schoolers and middle schoolers, respectively, whereas authoritative style is beneficial for both groups in terms of subject's food behaviors.

**Key words:** parenting style, child-feeding dimensions, factor analysis, elementary schoolers and middle schoolers, food behavior

#### 서 론

세계적인 영양문제 중의 하나인 어린이와 청소년 비만을 해결하기 위하여 연구자들은 아동의 가족환경적 요인에 관심을 가져왔으며 특히 '부모'를 조명하기 위하여 부모의 양육방식과 식사지도방식에 관한 이론들이 개념적 틀(conceptual frameworks)로서 적용되어 왔다. 부모의 자녀양육방식, 행동, 태도 및 차원에 대한 연구는 아동학과 교육학 등의 분야에서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되어 왔는데, 부모의 양육 태도 및 행위는 아동의 학습능력을 포함하는 지적발달, 사회심리적 적응, 문제행동 및 다양한 발달 양상에 있어 때

우 깊은 관련이 있음이 동·서양의 학자들에 의해 입증되었다(1-8).

2000년대 초반에 이르러, 여러 연구자들은 부모의 일반적인 양육태도가 아동의 건강상태와 식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들을 발표하였다. Kremers 등(9)은 부모의 양육태도에 의해 청소년의 과일섭취 수준이 영향을 받았고, Schmitz 등(10)은 아동의 신체활동에 부모의 양육태도가 의미 있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Golan과 Crow(11)는 아동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올바른 식습관과 운동습관에 부모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Regber와 Marild(12)는 부모의 양육방식과 청소년 비만 사이의 잠정적인 연

결고리를 제안하였다. 최근 미국의 중·고등학생 코호트를 대상으로 수행한 횡단 및 종단적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방식에 따라 자녀가 부모와 함께 식사하는 빈도가 달라진다는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권위 있는 양육방식(authoritative parenting style)을 택할수록 가족식사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13). 이와 같이 서양의 학자들은 비판을 포함하는 아동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자인 식사와 운동 습관은 부모의 일반적인 양육태도와 깊이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국내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부모의 양육태도 측정 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는 아동가족학 분야의 연구자들에 의해 주로 이루어졌다(14-17). Park(14)은 초등학교 고학년이 인지하는 어머니의 양육방식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서 8개의 하위 척도인 '애정', '적대', '통제', '과보호', '일관성 있는 규제', '적극적인 참여', '합리적인 지도', '성취'를 측정하기 위한 80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보고하였다. 이어서 Park과 Lee(15)에 의해 박의 척도는 단일 도시(서울)에서 대도시로 표본을 확대하고 문항을 보완하는 등 일부 수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적대와 통제요인이 하나의 요인으로 통합되고 요인적재값이 낮은 문항들을 조정함으로써 총 7개의 요인, 42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로 완성되었고, 다시 Lee(16)에 의해 중·소도시까지 표본을 확대하여 척도의 신뢰도 및 문항양호도, 수렴타당도, 변별타당도, 공인타당도 등 척도의 타당도를 다각도로 평가하였다. 한편, Cho 등(17)은 초등 1~2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총 44문항, 두 개의 요인(온정과 통제)으로 구성된 양육방식척도를 개발하여 적합성을 보고하였다. 부모의 양육행위는 아동의 교육문제와 사회적 성장과 발달뿐만 아니라 아동의 영양 상태와 건강지표에도 의미 있게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영양학 분야에서는 거의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한국 아동과 청소년에 있어 부모의 양육방식이 자녀의 영양문제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것은 현재 의문표로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다룬 하나의 개념은 한국 부모의 '식사지도방식'으로 외국 문헌에서 종종 언급되는 'feeding style'에 해당된다(18). 식사지도방식에 관한 척도개발 및 자녀의 건강지표와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주로 서양의 연구자들에 의해 보고되어왔다. 식사지도방식이란 부모의 자녀 양육에 관련된 행위와 태도 중에서 아동의 음식섭취와 관련되어 있는 인자들을 개념화한 것으로, 그간 제한(restriction), 강요(pressure), 감시(monitored) 등의 요인들이 비중 있게 다루어졌다(19,20). 부모가 채택하는 식사지도방식에 의해 자녀의 식품기호도 및 식습관 등이 영향을 받으며 비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자임이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21,22), 저연령 자녀에 대한 부모의 식사지도방식은 일반적인 양육방식을 예측할 수 있는 인자로 보고되었다(23,24).

부모의 식사지도방식에 관한 대표적인 척도인 CFQ

(Child Feeding Questionnaire)는 Birch 등(22)이 제안한 것으로 자녀의 식생활에 관한 부모의 신념, 태도 및 행동을 평가하기 위한 3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Hubbs-Tait 등(23)은 CFQ로부터 4개의 하위요인(responsibility, restrict, pressure, monitor)을 인용하고 여기에 2개의 요인(encourage, model)을 첨가하여 새로운 척도를 완성하였다. Hughes 등(25)은 '통제'에 치우쳐 구성된 척도인 Birch 등의 CFQ(22)를 '통제'와 '허용'에 관한 질문을 골고루 포함하여 만든 것으로, '요구함(demandingness)'과 '응해중(responsiveness)'의 두 가지 항목의 수준에 따라 네 가지 식사지도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국내에서 부모의 식사지도방식을 다룬 연구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Lee와 Kim(18)은 Hughes 등(25)이 개발한 CFSQ(Caregiver's Feeding Styles Questionnaire)를 사용하여 유아의 자조기술과 식사지도방식이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보여주었다.

그간 국내 연구자들도 자녀의 식행동과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소들을 다각도로 조명하였으나, 자녀의 식사나 간식섭취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관리자의 한 사람인 어머니에 의한 영향력의 형태와 범위에 대해서는 그다지 연구가 되지 못한 실정이다. 일찍이 Kim과 Mo(26)는 한국인 부모와 자녀의 식품기호도에 나타난 유사성과 아울러 어머니의 학벌에 관계없이 음식을 자녀의 칭찬과 처벌 수단으로 사용한다고 하였으나, 한국 부모가 사용하는 식사지도 방식과 태도에 관해 구체적인 요소들을 밝혀내지는 못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국내 영양학 관련 문헌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던 부모의 양육방식과 식사지도방식 등의 개념을 도입한다는 견지에서 조금 생소할 수 있으나 한국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인지하는 부모의 양육방식과 식사지도방식에서의 주된 요인들을 밝혀내고, 이들 요인들과 어린이와 청소년의 식행동의 상호관련성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시도라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고학년생과 중학생들이 인지하는 어머니의 양육방식과 식사지도방식의 내재요인들을 밝혀내고, 초등학생과 중학생 각각에 있어 이들이 인지하는 양육방식과 식사지도방식 요인 및 식행동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데 두었다.

## 대상 및 방법

### 연구 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에 이르는 초등학교 4~6학년과 중학교 2~3학년을 대상으로 이들이 인지하는 어머니의 양육방식과 식사지도방식 및 선택된 식행동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부산과 양산 소재 5개교 초등학생 360명과 2개교 중학생 410명 중, '현재 어머니가 아동을 대하고 지도하는 방식은 아동의 식생활이나 건강상에 나타난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예전과 비교해서 바뀌었다고 보십

니까?’ 및 ‘현재 어머니가 아동이 먹는 것과 관련해서 지도하는 방식은 아동의 식생활이나 건강상에 나타난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예전과 비교해서 바뀌었다고 보십니까?’라는 두 질문에 대해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라고 답한 아동과 청소년은 분석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즉, 현재 아동이 인지하는 어머니의 양육방식이나 식사지도방식이 아동의 식습관 또는 영양상태에 영향을 주는 인자이기보다 아동의 상태를 인지한 후 나타난 어머니의 반응 또는 결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자들을 제외하기 위함이었다. 결과적으로 초기 응답자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초등학생 159명과 중학생 176명이 최종 분석대상자로 결정되었다.

### 조사 내용 및 방법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인지하는 어머니 양육방식과 식사지도방에 관한 조사도구를 포함하는 설문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선행연구(15-17)를 이용하여 인용, 수정 또는 번안하였다. 어머니 양육방식에 관한 설문지는 Park과 Lee(15)가 보고한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관한 척도와 Kim(27)이 미국 초등학생과 중학생 영양조사에서 사용한 부모의 처벌에 관한 문항들을 인용하였다. 식사지도방식 척도는 Hubbs-Tait 등(23)이 사용한 척도를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국내 실정에 맞게 번안하여 사용하였고 ‘편식교정 교육’과 ‘바람직하지 않은 식행동 보이기’ 등의 개념을 추가하였다. 최종 설문지는 조사대상자 중 일부 초등학생(10명)과 중학생(8명)에 대해 포커스그룹 면담을 실시하여 예비설문지에 대한 문항적절성 및 단어이해도를 파악하여 수정·완성하였다. 각 문항의 측정은 Likert 5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3점: 보통이다, 4점: 그런 편이다, 5점: 매우 그렇다)를 이용하였다. 일반사항은 대상자의 성별, 연령, 가정형편, 부모의 연령과 학벌, 직업여부 등을 포함하였다. 어머니 양육방식 척도는 어머니가 평상시에 자녀를 대하고 지도하는 방식과 태도 및 처벌하는 방식에 대한 것으로 10개의 요인을 측정하기 위한 총 61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어머니 식사지도방식 척도는 어머니가 자녀의 식사와 간식 섭취에 대하여 규제하거나 지도하는 방식과 태도에 관한 질문들로서 8개의 요인을 측정하기 위한 총 5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문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결과에서 언급하였다. 대상자 중 일부(20명)를 이용하여 2주간격의 검사-재검사법을 실시하여 어머니 양육방식척도와 식사지도방식 척도의 내적신뢰도를 측정된 결과, 피어슨 상관관계수가 각각 0.867과 0.898로 나타났기에 만족할 만한 수준의 신뢰도를 획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대상자들의 식행동에 관한 특징을 알아보기 위하여 건강에 유익한 식품들과 유익하지 않은 식품들에 대한 섭취 빈도를 조사하였고, 본 연구가 어머니의 일반적인 양육방식과 식사지도방식을 다루는 점을 감안하여 부모와 함께 식사하는 빈도와 혼자 식사하는 빈도를 식행동 변수에 포함시켰다. 요약하면, 설문지 내에 12항목으로 구성된 식품섭취빈도조

사지를 포함하였는데 김치, 채소, 생선 등 섭취가 권장되는 식품들과 라면, 과자, 탄산음료 등 초등학생과 중학생에서 섭취빈도가 높은 간식의 종류들로 구성되었으며, 측정척도는 7개 범주(1점: 먹지 않았다, 2점: 1~2회/주, 3점: 3~4회/주, 4점: 5~6회/주, 5점: 1회/일, 6점: 2회/일, 7점: 3회 이상/일)로 구성하였다. 요인분석을 통하여 섭취빈도가 유사한 식품항목들을 통합함으로써 섭취빈도에 따른 식품패턴을 도출하였고 이들 요인을 최종적으로 식행동 변수에 포함시켰다. 또 부모와 함께 식사하는 빈도는 대상자가 지난 한 주 동안 어머니 또는 아버지와 함께 아침식사 또는 저녁식사를 한 빈도를 각각 묻은 뒤 이 네 문항의 평균값을 활용하였고, 혼자 식사하는 빈도는 지난 한 주 동안 혼자 아침을 먹은 빈도와 혼자 저녁을 먹은 빈도의 평균값을 이용하였다. 섭취 빈도는 Likert 5점 척도(1점: 먹지 않았다, 2점: 1회/주, 3점: 2~3회/주, 4점: 4~5회/주, 5점: 6~7회/주)로 측정하였고 이 두 변수는 각각 ‘부모와 함께 식사(eat with parent)’ 및 ‘혼자 식사(eat alone)’로 명명하였다.

### 통계분석

자료분석은 SAS 프로그램(ver. 9.2)을 이용하였다. 빈도와 평균, 표준편차 등을 이용하여 데이터의 분포를 기술하였으며,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비교는 *t*-test를 수행하였고, 부모 양육방식 및 식사지도방식의 내재요인은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알아보았다. 최적의 요인수 결정은 고유값 1 이상을 만족하면서 스크리 도표 상에서 꺾은선 그래프가 완만해지는 지점에 해당하는 x축의 값으로 결정하였다. 요인적재값 0.4 이상을 획득한 항목에 한해 요인에 포함시켰고, 하나의 항목이 2개 이상의 요인에 적재될 경우에는 기존연구를 토대로 삭제하거나 다수 요인에 공통으로 포함시켰다. 상호 독립적이지 않은 요인의 해석을 위해 사교회전(oblique rotation)을 실시하였다(28). 또한, 일차적으로 추출된 어머니 양육방식 요인들을 이용하여 2차 요인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보다 포괄적인 양육방식으로 도출하였다. 끝으로 1차 및 2차 요인분석에서 추출된 어머니 양육방식, 식사지도방식 요인 및 아동의 식행동 변수 4가지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관련 정도를 살펴보았다. 통계분석의 유의수준은 0.05로 정하였다.

## 결과 및 고찰

### 대상자들의 인구학적 특징

본 연구에 참여한 초등학생 및 중학생의 인구학적 특징을 Table 1에 요약하였다.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각각 39.7세, 43.9세이며, 조사 당시 직업을 가진 어머니의 비율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각각 66.1%, 61.5%였다. 초등학생의 어머니 31%와 아버지 43%만이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반면에, 중학생의 어머니 50%와 아버지 60%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Elementary schoolers (n=159, 9~11 years)	Middle schoolers (n=176, 13~15 years)
Parent characteristics	Average age (year)		
	Mother	39.7±3.8	43.9±3.03
	Father	42.8±4.2	46.8±3.03
	Currently employed (%)		
	Mother	66.1	61.5
	Father	97.4	98.2
	Education <sup>1)</sup>		
	Mother	30.9	50.6
	Father	43.2	59.3
	Subjective household income	3.1±0.59 <sup>2)</sup>	2.9±0.44
	Very poor (%)	0	1.15
	Moderately poor (%)	9.43	9.77
	Neither poor nor abundant (%)	68.55	83.91
	Moderately abundant (%)	20.13	5.17
Very abundant (%)	1.89	0	
Child characteristics	Average age (year)	10.7±0.73	14.8±0.65
	Gender <sup>3)</sup>	51.9	36.6
	Body weight (%)		
	Below normal	12.3	21.1
	Normal	67.4	58.9
	Overweight	20.3	13.1
	Obesity	0	6.9

<sup>1)</sup>Number of mothers or fathers whose education level was equal to or higher than high school.

<sup>2)</sup>Mean±SD for subjective ratings for subject's household economic condition, 1: very poor to 5: very abundant.

<sup>3)</sup>% of female.

도시와 농촌에서 고르게 샘플링을 하고자 하였으나 중학교는 도시지역에 한정하여 이루어진 반면 초등학교는 연구에 참여한 5개교 중 4개교가 부산 근교 농촌지역에 소재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상자 스스로 인지하는 가정 형편(1: 매우 어렵다, 5: 매우 부유하다)은 초등학교생이 3.1점, 중학교생이 2.9점이었다. 조사에 참여한 초등학교생과 중학교생의 평균연령은 각각 10.7세, 14.8세였으며, 초등학교생은 대상자의 성비가 비슷한 반면 중학교생은 남자가 전체의 약 67%를 차지하였다.

어머니 양육방식에 관한 탐색적 요인분석 및 2차 요인 분석

Table 2는 초등학교생과 중학교생이 인지하는 어머니의 양육 방식에 관한 문항들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요약하였다. 요인적재값이 낮은(0.04 미만) 문항들을 제거하고, 요인의 내적일치도(크론바흐 알파)를 하락시키는 문항을 제거한 결과 총 49개의 문항을 포함하는 10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요약하면, '합리적 지도'(P1, 8문항;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방법들인지 가르쳐 주신다, 내가 옳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는 왜 그것이 옳지 못한가를 설명해 주신다 등), '애정과 참여'(P2, 9문항; 나와 다정하게 이야기를 하신다, 나와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려 하신다 등), '성취 격려 및 기대'(P3, 6문항;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하신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격려해 주신다 등), '일관성 있는 규제'(P4, 4문항; 나에게 보도록 허락된 TV 시간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신다,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돌아올 결과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신다 등), '비난과 성냄'(P5, 6문항; 나의 나쁜 성격에 대해 비난하는 말을 자주 하신다, 화가 날 때, 나에게 화풀이를 하신다 등), '과보호'(P6, 4문항; 내가 너무 소중한하므로 항상 내 옆에서 보살펴야 마음이 놓이신다, 나의 친구관계나 학교생활에 대해 지나치게 염려하신다 등), '감정적 처벌'(P7, 3문항; 혼내실 때 주로 내 잘못에 대해 죄의식이나 창피함을 가지도록 야단을 치신다, 혼내실 때 주로 나의 행동을 비꼬거나 놀리는 방식으로 나를 야단치신다 등), '육체적 처벌'(P8, 2문항; 혼내실 때 주로 매를 들어 때리신다, 혼내실 때 주로 손이나 발로 신체부위(뺨, 엉덩이 등)를 때리신다), '자녀가 좋아하는 것을 못하게 함으로써 처벌'(P9, 2문항; 혼내실 때 주로 내가 친구들과 놀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벌주신다, 혼내실 때 주로 내가 좋아하는 일을 못하게 하는 것으로 벌주신다) 및 '처벌을 못함'(P10, 3문항; 잘못된 것이 있더라도 지적하거나 혼내지 않고 넘어가는 일이 많다, 내가 잘못된 일이 있어도 혼내지 않는다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들 10개의 요인들은 Park과 Lee(15)의 척도 및 Kim(27)의 척도에서 인용하였던 요인들과 대체로 유사하였다. 다만, Park과 Lee(15)의 '애정'과 '적극적 참여' 요인이 '애정과 참여'의 단일 요인으로 통합되었다. 즉, 본 연구에 참여한 초등학교생과 중학교생은 어머니의 애정표현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사한 개념으로 인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처벌방식에 대해서는 '자녀가 좋아하는 것을 못하게 함으로써 처벌', '감정적 처벌'과 '육체적 처

Table 2. Exploratory factor analysis for parenting style dimensions perceived by elementary schoolers and middle schoolers

Items	Factors <sup>1)</sup> and loading scores <sup>2)</sup>									
	P1	P2	P3	P4	P5	P6	P7	P8	P9	P10
She teaches me the right things to do when I don't behave.	0.83									
When I do something wrong, she explains why I am wrong.	0.95									
She tells me why I should not make unreasonable demands.	0.86									
She tries to explain as much as she can when I ask a question.	0.79									
If I'm afraid of something she listens to me and talks with me.	0.60									
She encourages me to consider other peoples' position.	0.79									
She explains why she is upset with me when I do something wrong.	0.70									
She encourages me to cooperate with family members.	0.57									
She talks to me with affection.		0.46								
When she confronts me about something, she does so gently.		0.44								
She tries to spend a lot of time with me.		0.56								
She tells me things like you are very important to me.		0.53								
She likes to talk about new things with me.		0.65								
When she's angry, she vents her anger at me.					0.60					
If I do something she doesn't like, she punishes me.					0.46					
If I am noisy at home, she gets irritated.					0.77					
She criticizes things she doesn't like about my personality a lot.					0.77					
She does not see my good qualities and only notices my bad qualities.					0.44					
She gets annoyed when I try to talk to her.					0.49					
Because she thinks I'm too precious, she can only relax when she is right beside.						0.66				
She teaches me how to do things even when already know how to do them.						0.67				
She is too concerned about my school life and friendships.						0.81				
If I have a problem with another kid, she intervenes.						0.60				
She says I should become a great person.				0.74						
She encourages me to study hard.				0.74						
She encourages me to have grand dreams and ambitions				0.60						
She says that she will make sure I finish my education no matter what.				0.53						
She praises me when I accomplish a hard task.				0.60						
She encourages me to do my best.				0.64						
She makes sure that I'm not behind at school.				0.40						
She wants me to be better than other kids.				0.81						
We have a good time singing together.		0.87								
She does active activities with me.		0.89								
If I ask her something she explains using tools like a dictionary.		0.53								
She finds things to do together on cold or cloudy days.		0.70								
She makes me follow my promises about TV time.				0.72						
She makes sure that we don't break curfew.				0.72						
She makes me follow my promises about computer game time.				0.76						
She has a clear standard about the consequences of not keeping a promise.				0.58						
She makes me feel guilty and ashamed when punishing me.							0.75			
She yells and punishes me if I do something wrong.							0.70			
She mocks my behavior when she punishes me.							0.67			
She physically hurts me when punishing me.								0.77		
She usually uses her hands or feet to hit me when she punishes me.								0.73		
Her way of punishment is not letting me play with my friends.									0.71	
Her way of punishment is not letting me do what I want to do.									0.65	
She usually doesn't punish me and just lets it pass.										0.85
She never punishes me even though I deserve it.										0.85
When I fight with a friend she's always on my side even though I did the wrong thing.										0.68
Cronbach's $\alpha$	0.91	0.89	0.86	0.84	0.78	0.72	0.76	0.70	0.78	0.76

<sup>1)</sup>P1: reasonable guidance, P2: affection and involvement, P3: achievement expectation, P4: clear behavioral regulation, P5: criticism and anger, P6: overprotection, P7: psychological punishment, P8: harsh punishment, P9: punish by withdrawal of child's privileges, P10: lack of punishment.

<sup>2)</sup>Factor loading scores of equal to or greater than 0.4 are only indicated.

별', '처벌을 못함'과 같은 처벌방식의 다양한 차이를 분명히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들 간에 매우 강한 상관관계가 확인됨으로써, 유사한 요인끼리 통합하기 위하여 2차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Table 3에 요약하였다. 즉, 어머니 양육에 관련된 10개의 요인을 변수로써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P5~P9는 첫째 요인에, P6과 P10은 둘째 요인에, P1~P4는 셋째 요인에 각각 요인적재값 0.4 이상을 획득하였다. 단, P6은 첫째 및 둘째

Table 3. Secondary factor analysis of 10 maternal parenting dimensions extracted through a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Items	Factors and loading scores		
	Authoritarian	Permissive	Authoritative
Reasonable guidance	-0.13	-0.14	0.80
Affection and involvement	-0.24	0.03	0.81
Achievement expectation	0.03	-0.10	0.84
Clear behavioral regulation	0.26	0.05	0.80
Criticism and anger	0.74	-0.23	-0.18
Overprotection	0.54	0.40	0.28
Psychological punishment	0.79	-0.09	-0.02
Harsh punishment	0.76	-0.04	-0.01
Punish by withdrawal of child's privileges	0.72	0.19	0.01
Lack of punishment	-0.10	0.91	-0.17
Cronbach's $\alpha$	0.768	0.245 <sup>1)</sup>	0.821

<sup>1)</sup>This was an unacceptable  $\alpha$  score therefore factor 'Permissive' was determined as a factor of having a single item 'Lack of punishment'.

요인에 공통적으로 충분한 적재값을 나타내어 두 요인 모두에 포함시켰다. 끝으로 3개의 2차 요인을 구성하는 항목들의 내적일치도(Cronbach's  $\alpha$ )를 구한 결과, 첫째와 셋째 요인은 충분히 높은 일치도를 나타내었으나(0.768, 0.821), 둘째 요인은 매우 낮은 일치도를 보였다(0.245). 다만, 허용적인 부모는 통제와 성숙요구 수준, 의사소통이 낮은 반면 매우 온정적인 유형으로서, 자녀에게 벌을 거의 주지 않는 양상을 띠는 부모의 양육방식 이론에 근거하여 둘째 요인은 단일 항목인 P10만으로 구성되었다. Robinson 등(4)이 개발한 부모양육방식 척도에 의하면, 권위 있는(authoritative) 양육방식은 이성(reasoning)/유도(induction) 및 온정과 지원을 포함하고, 권위주의적인(authoritarian) 방식은 언어적 폭력, 육체적 억압, 비합리적, 처벌전략을 포함하므로 본 연구에서 나타난 2차 요인분석의 결과를 잘 대변해준다 하겠다. 요인명은 Baumrind가 제시한 부모양육이론(1-3)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명명하였다. 즉, 첫째 요인은 '비난과 성냄', '과보호', '감정적 처벌', '육체적 처벌', '자녀가 좋아하는 것을 못하게 함으로써 처벌'을 포함하여 '권위주의적인'(authoritarian)으로, 둘째 요인은 단일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기는 하나, 허용적 양육방식의 핵심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허용적인'(permissive)으로, 셋째 요인은 '합리적 지도', '애정과 참여', '성취격려 및 기대', '일관성 있는 규제'를 포함하여 '권위 있는'(authoritative)으로 명명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서 흥미로운 점은, '권위주의적인'의 한 요소로 포함된 '자녀가 좋아하는 것을 못하게 함으로써 처벌(P9)'은 일반적으로 '권위 있는' 양육방식을 택하는 부모가 취하는 자녀의 처벌형태로 알려져 있으며(1-3), 미국의 어린이와 청소년 가정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권위 있는 양육방식과 관련된 처벌의 형태로 드러났다고 보고하였다(26). 이와 같은 상이한 결과가 나타난 원인에는 문화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피양육자의 연령도 포함될 것으로 추측되며 부모양육방식이 문화와 사회의 특수성, 자녀의 성별 및 연령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 지에 대해서는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어머니의 식사지도방식에 관한 탐색적 요인분석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인지하는 어머니의 식사지도방식 척도에 관한 요인분석 결과를 Table 4에 요약하였다. 최종적으로 8개의 내재요인으로 추출되었고 43문항을 포함하였다. 요약하면, '식사량 조절'(F1, 2문항: 내가 한 번에 먹을 최소량을 정해 주신다, 내가 한 번에 먹을 최대량을 정해 주신다), '식품제한'(F2, 3문항: 내가 탄산음료를 지나치게 많이 먹지 못하도록 하신다, 내가 설탕이 든 음식(사탕, 아이스크림, 케이크, 빵 등)을 지나치게 많이 먹지 못하도록 하신다 등), '섭취강요'(F3, 5문항: 나는 어머니가 주시는 음식을 완전히 다 먹어야 한다, 내가 먹고 싶은 양보다 훨씬 더 많이 먹도록 하신다 등), '모니터링'(F4, 10문항: 어머니는 내가 탄산음료를 얼마나 먹는 지 자세히 알고 계신다, 어머니는 내가 사탕이나 초콜릿을 얼마나 먹는 지 자세히 알고 계신다 등), '바람직하지 않은 식행동 보여주기'(F5, 2문항: 나와 함께 간식을 먹을 때 콜라 등 탄산음료를 마신다, 나와 함께 간식을 먹을 때 닭튀김, 야채튀김 등 튀긴 음식을 드신다), '바람직한 식행동 보여주기'(F6, 5문항: 나와 함께 아침을 먹을 때 채소반찬을 드신다, 나와 함께 간식을 먹을 때 과일을 드신다 등), '편식개선 노력'(F7, 6문항: 내가 채소를 꺼려하고 고기음식만 좋아하는 편식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신다, 나와 함께 외식을 할 때 음식을 골고루 드신다 등), '바람직한 식행동 권장'(F8, 10문항: 학교급식에서 제공된 채소를 충분히 먹도록 항상 다독여 주신다, 아침 또는 저녁 식사 때 제공된 김치를 먹도록 항상 다독여 주신다 등)을 포함하였다. 각 요인별 구성항목들의 단일차원성 또는 내적일관성을 구한 결과, Cronbach's  $\alpha$ 가 모두 0.6 이상으로 나타나 요인의 내적일관성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이용하여 식사지도방식의 세부차원을 도출하는 데 그쳤으므로 향후 다양한 연령의 자녀에 대해 한국 어머니의 식사지도방식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자녀의 영양건강 지표들과의 관련성을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4. Exploratory factor analysis for child feeding style dimensions perceived by elementary schoolers and middle schoolers

Items	Factors <sup>1)</sup> and loading scores <sup>2)</sup>							
	F1	F2	F3	F4	F5	F6	F7	F8
She has a rule about the minimum amount of food I must eat.	0.86							
She has a rule about the maximum amount of food I must eat.	0.94							
She doesn't let me drink soft drinks.		0.81						
She doesn't let me eat food with a lot of sugar.		0.90						
She doesn't let me eat fast-food such as hamburger, chicken fries, and pizza.		0.85						
I must eat everything my mom gives me.			0.70					
I must eat until my mom is satisfied.			0.65					
She makes me eat a lot of fruits and vegetables.			0.44					
She makes me eat a set amount of food even though I'm not hungry.			0.74					
She gives a lot more food than I want.			0.84					
She eats fruit when we eat breakfast together.							0.68	
She eats vegetables when we eat breakfast together.							0.75	
She eats fruit when she eats dinner with me.							0.84	
She eats vegetables when we eat dinner together.							0.82	
She eats fruit when she eats snacks with me.							0.60	
She drinks soft drinks when we eat snacks together					0.79			
She eats fried food for snacks.					0.77			
She does not tolerate my pickiness about meat and vegetables.								0.42
She is not picky when we go out to eat.								0.54
She says that eating vegetables are good for your health.								0.73
She says that eating fruit is good for your health.								0.67
She says that meat and fat are bad for your health.								0.67
She usually says that being picky is bad for the body.								0.82
She keeps track of how much soft drinks I drink.				0.89				
She keeps track of how much candy and chocolate I eat.				0.81				
She keeps track of how much icecream I eat.				0.91				
She keeps track of how much bread and cake I eat.				0.90				
She keeps track of how many cookies and chips I eat.				0.90				
She keeps track of how much food with a lot of oil I eat.				0.87				
She keeps track of how much dairy food such as milk, yogurt, and cheese I eat.				0.65				
She keeps track of how much fish I eat.				0.48				
She keeps track of how much fruit I eat.				0.52				
She keeps track of how much of vegetables I eat.				0.49				
She encourages me to eat vegetables at school.								0.89
She encourages me to eat kimchi at school.								0.90
She encourages me to eat fruit at school.								0.92
She encourages me to eat fish at school.								0.90
She encourages me to eat vegetables at breakfast and dinner.								0.84
She encourages me to eat kimchi at breakfast and dinner.								0.82
She encourages me to eat fruit at breakfast and dinner.								0.77
She encourages me to eat fish at breakfast and dinner.								0.75
She encourages me to eat foods with less salt.								0.72
She encourages me to drink juice and tea instead of soft drinks.								0.70
Cronbach's $\alpha$	0.86	0.88	0.78	0.91	0.65	0.84	0.79	0.96

<sup>1)</sup>F1: portion control, F2: restriction, F3: pressure to eat, F4: monitor, F5: undesirable model, F6: desirable model, F7: discourage unhealthful eating, F8: encourage healthful eating.

<sup>2)</sup>Factor loading scores of equal to or greater than 0.4 are only indicated.

###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식행동 비교

12가지 식품항목의 섭취빈도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총 2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크론바흐 알파값이 각각 0.767과 0.738로 나타나 내적일치도가 양호하였다. 첫 번째 요인은 김치, 채소, 과일, 우유, 생선, 100% 과일주스를 포함하였기에 '건강에 유익한 식품 섭취빈도'(frequency of healthful food)로 명명하였고, 두 번째 요인은 피자, 햄버거, 닭튀김 등의 패스트푸드, 라면, 탄산음료, 과자, 냉동식품, 햄, 베이컨, 소시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건강에 해로운 식품 섭취빈도'

(frequency of unhealthful food)로 명명하였다(Table 5). 각 요인에 포함된 식품항목별 섭취빈도의 평균값을 요인점수로 부여하였다.

Table 6은 본 연구에서 식행동 변수로써 이용된 4 변수들(부모와 함께 식사, 혼자 식사, 건강에 유익한 식품 섭취빈도 및 건강에 해로운 식품 섭취빈도)에 대하여 초등학생과 중학생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부모와 함께 식사'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평균값이 각각 3.80, 3.45로 나타나 초등학생이

Table 5. Exploratory factor analysis for frequency of 12 food items consumed by elementary schoolers and middle schoolers

Items <sup>1)</sup>	Factors and loading scores	
	Frequency of healthful food	Frequency of unhealthful food
Kimchi	0.72	-0.12
Vegetable side dishes	0.72	-0.23
Fruits	0.68	0.10
Milk	0.67	0.01
Fish	0.65	0.22
100% fruit juice	0.59	0.24
Fast foods	-0.03	0.66
Ramyun	-0.18	0.69
Carbonated soft drinks	-0.03	0.67
Chips or cookies	0.17	0.60
Frozen foods	0.16	0.62
Hams	-0.03	0.64
Cronbach's $\alpha$	0.767	0.738

<sup>1)</sup>Items were presented with several examples on the questionnaire. For instance, Fast foods: pizza, hamburger, and chicken fries, Frozen foods: processed and frozen foods, Hams: bacon and sausages. Ramyun means fried Korean noodles.

중학생에 비해 부모와 함께 식사하는 횟수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p < 0.01$ ), '혼자식사'는 군 간에 통계적 차이가 없었다. '건강에 유익한 식품 섭취빈도'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평균값이 각각 4.67 및 4.39로 초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p < 0.05$ ). 한편, '건강에 해로운 식품 섭취빈도'는 중학생이 초등학생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값을 보였다( $p < 0.05$ ). 이와 같은 결과는 Table 1에서 나타난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비만도의 차이와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즉, 중학생이 초등학생에 비해 비만인 학생의 비율이 높은 것은 중학생의 식품섭취 패턴이 건강에 유익한 식품은 덜 소비하고 건강에 해로운 식품을 자주 섭취함으로써 비만을 초래할 가능성이 상승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종합적으로 볼 때, 중학생들은 초등학생에 비해 부모와 함께 식사하는 빈도가 낮으며 건강에 유익한 식품은 적게 섭취하고 건강에 해로운 식품은 자주 섭취하는 것으로 드러나 식생활

상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고 사료된다.

어머니의 양육방식과 식사지도방식 요인의 상관관계분석

Table 7에 어머니의 양육방식에 관한 3변수(권위주의적인, 허용적인, 권위 있는)와 식사지도방식 요인에 관한 8변수(식사량 조절, 식품제한, 섭취강요, 모니터링, 바람직하지 않은 식행동 보여주기, 바람직한 식행동 보여주기, 편식개선 노력, 바람직한 식행동 권장)의 상관관계분석 결과를 요약하였다. '권위주의적인' 양육방식을 택하는 어머니일수록 자녀에게 '식품섭취'를 강요하였으며 '바람직하지 않은 식행동 보여주기' 경향이 강하였다. 또 '권위주의적인' 양육방식이 자녀의 식행동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중학생에 비해 초등학생에서 더 높았다. 일반적으로 권위주의적인 양육방식은 자녀를 통제하고 자녀의 무조건적인 복종에 가치를 두고, 자녀가 주어진 행동기준을 어겼을 때에는 엄하게 벌주고 온정을 덜 베푸는 부모라고 알려져 있으므로, '권위주의적인' 방식과 '식품제한' 간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예측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Hubbs-Tait 등(23)은 권위주의적인 양육방식은 식품제한 및 섭취강요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모델링과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줌으로써 부모양육방식의 이론에 충실한 결과들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2차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한 '권위주의적인' 요인이 기존의 문헌에서 나타나는 권위주의적인 양육방식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나, 한국이라는 문화권에서는 권위주의적인 양육방식이 서양과 다르게 해석되어야 하는 지 알아볼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깊이 있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허용적인' 방식과 '바람직한 식행동 권장'은 역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초등학생  $r = -0.24$ , 중학생  $r = -0.15$ ,  $p < 0.01$ ). 즉 처벌을 하지 못하는 어머니일수록 자녀에게 올바른 식습관을 권장하지 않았다. 또한 '허용적인' 방식을 사용할수록 초등학생의 '식사량 결정'( $r = -0.19$ ), '섭취강요'( $r = -0.15$ ) 및 '편식개선 노력'( $r = -0.22$ )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

Table 6. T-test for selected food behaviors of elementary schoolers and middle schoolers

Variables <sup>1)</sup>	Elementary schoolers (n=159, 9~11 years)	Middle schoolers (n=176, 13~15 years)	T-test score (p value)
Eat with parents	3.80 ± 1.15 <sup>2)</sup>	3.45 ± 1.03**	2.90 (0.004)
Eat alone	1.79 ± 1.12	1.94 ± 0.96	-1.28 (0.201)
Frequency of healthful food	4.67 ± 1.23	4.39 ± 1.06*	2.28 (0.023)
Frequency of unhealthful food	2.35 ± 0.97	2.54 ± 0.82*	-1.97 (0.049)

<sup>1)</sup>Eat with parents: average frequencies of child had meals with parents (breakfast with mom, breakfast with dad, dinner with mom, and dinner with dad during the past week), Eat alone: average frequencies of child had meals alone (breakfast ate alone and dinner ate alone during the past week), Frequency of original items for 'Eat with parents' and 'Eat alone' factors were asked and coded as 1: did not eat, 2: 1/week, 3: 2~3/week, 4: 4~5/week, 5: 6~7/week, during the past week. Frequency of healthful food: average of consumption frequencies of kimchi, vegetable side dishes, fruits, milk, fish, and 100% fruit juice, Frequency of unhealthful food: average of consumption frequencies of fast foods such as pizza, hamburger, and chicken fries, ramyun (fried Korean noodle), carbonated soft drinks, chips or cookies, frozen foods such as frozen pizza, hams including bacon and sausages. Frequency of original food items were coded as 1: did not eat, 2: 1~2/week, 3: 3~4/week, 4: 5~6/week, 5: 1/day, 6: twice/day, 7: equal to or more than 3/day, during the past week.

<sup>2)</sup>Mean ± SD. \* $p < 0.05$ , \*\* $p < 0.01$ .



Table 7.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perceived maternal child feeding dimensions and parenting styles for elementary schoolers and middle schoolers

Factors <sup>1)</sup>	Elementary schoolers (n=159, 9~11 years)					Middle schoolers (n=176, 13~15 years)										
	F1	F2	F3	F4	F5	F6	F7	F8	F1	F2	F3	F4	F5	F6	F7	F8
Authoritarian	-0.04 <sup>2)</sup>	-0.04	0.21**	-0.06	0.33****	0.05	-0.13	-0.13	-0.01	0.10	0.26***	-0.08	0.17*	0.07	0.04	0.01
Permissive	-0.19*	-0.04	-0.15*	-0.05	-0.08	-0.01	-0.22**	-0.24**	0.03	-0.13	-0.01	-0.14	-0.02	-0.12	-0.14	-0.15*
Authoritative	0.36****	0.37****	0.44****	0.44****	0.15	0.52****	0.51****	0.50****	0.24**	0.34****	0.37****	0.30****	0.03	0.29****	0.44****	0.45****

<sup>1)</sup> Authoritarian, permissive, and authoritative parenting styles.

<sup>2)</sup>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p<0.05, \*\*p<0.01, \*\*\*p<0.001, \*\*\*\*p<0.0001.

F1: portion control, F2: restriction, F3: pressure to eat, F4: monitor, F5: undesirable model, F6: desirable model, F7: discourage unhealthy eating, F8: encourage healthful eating.

반적으로 허용적인 부모는 자녀의 성장과정에 적극적인 개입을 피하고 필요한 수준의 통제마저도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기에(1-3), 본 연구결과는 허용적인 부모의 특징을 다소 반영해 주었다고 사료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사용된 '허용적인' 방식은 '차별하지 못함'의 단일 항목으로 이루어진 요인이지만, 자녀가 잘못이 있어도 처벌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은 허용적인 부모의 중요한 특성이기 때문에 제한된 항목만으로도 설명력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어머니의 '권위 있는' 방식은 초등학생과 중학생 모두, '바람직하지 않은 식행동 보여주기'를 제외한 모든 식사지도방식 요인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p<0.0001). 즉, 어머니가 권위 있는 양육방식을 택할수록 자녀의 식사량을 결정하고, 자녀가 섭취하는 식품을 자세히 모니터링하고, 건강에 좋지 않은 식품들을 제한하고, 자녀로 하여금 음식을 더 섭취하도록 강요하는 경향이 높으며, 자녀에게 바람직한 식습관의 모범을 보일 뿐 아니라, 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가정과 학교에서 과일과 채소 섭취 등의 올바른 식습관을 권장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단, '권위주의적인' 방식과 '식사량결정'의 상관관계 계수가 초등학생과 중학생에서 각각 r=0.44, r=0.24로 나타났고, '권위주의적인' 방식과 '바람직한 식행동 보여주기'의 상관관계 계수는 각각 r=0.52, r=0.29로 나타난 것으로 볼 때, 권위주의적인 어머니에 의해 식사량의 최대와 최소가 결정되는 것과 자녀에게 바람직한 식행동을 보이는 경향은 초등학생 자녀일 경우 더 높다고 사료된다. 특히, 권위 있는 양육방식을 택하는 어머니는 자녀의 연령에 상관없이 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가정과 학교에서 자녀가 올바른 식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권위 있는 양육방식과 식사지도방식 요인간의 상관관계의 정도는 초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높았으므로 권위 있는 양육방식을 택하는 어머니는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자녀의 식품 섭취에 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이 같은 결과는 권위 있는 양육방식을 택하는 부모는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적절한 자율성을 인정해주고 강요나 명령보다는 대화를 통해 이해시키는 경향이 높다는 양육방식의 이론(1-4)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인다. 단, 상관관계분석의 한계상 기타 요인들을 통제하지 못하였기에 인과관계와 같은 해석은 삼가야 한다.

Hubbs-Tait 등(23)의 연구는 몇 가지 면에서 본 연구결과와 비교할 수 있다. 첫째, '권위 있는' 방식과 '식사량 결정'(Hubbs-Tait 연구에서는 'responsibility'로 명명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portion control'로 명명함), '모니터링', '권장', '모델링' 간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두 연구 모두에서 확인되었다. 둘째, Hubbs-Tait 연구의 경우, '권위 있는' 양육방식은 '제한' 및 '강요' 요인과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서양의 어머니는 권위 있는 양육방식을 택할수록 자녀가 건강에 좋

지 않은 음식을 먹지 못하도록 제한을 하거나 자녀로 하여금 음식을 더 먹도록 강요하는 경향이 낮았으나, 한국 어머니는 권위 있는 양육방식을 택할수록 탄산음료, 당류, 햄버거, 닭튀김, 피자 등의 식품을 먹지 못하도록 제한하거나, 자녀의 요구보다는 어머니가 정한 기준만큼 자녀가 음식을 섭취하도록 강요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이 같은 차이가 나타난 이유를 몇 가지로 추측해보자면 첫째, Hubbs-Tait 연구는 미국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이들의 부모가 설문조사에 참여한데 비해 본 연구는 한국 초등학교 고학년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들이 인지하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식사지도방식을 조사하였다는 데 부분적으로 기인할 것으로 보인다. 부모 자신이 인지하는 자녀에 대한 양육방식과 자녀에 의해 인지되는 부모의 양육방식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 다수의 연구자들에 의해 보고되었다. Paulson과 Sputa(30)는 자녀의 건강관련 결과변수는 부모가 인지하는 것보다는 자녀 자신이 인지하는 양육방식과 더 관련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자녀양육에 더 깊이 참여한다고 보고하였다. Cohen과 Rice(31)도 자녀가 인지하는 부모의 양육방식이 부모자신이 인지하는 양육방식에 비해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더 잘 설명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디자인은 자녀가 인지하는 어머니의 양육방식을 측정된 후 자녀 자신들의 식행동 관련 변수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으므로 대상자에 있어서 어머니의 양육방식과 식행동 간의 상관관계가 보다 직접적으로 측정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두 연구에 있어 식사지도방식에 관한 척도는 상당히 유사성이 있었으나 부모의 일반적인 양육방식에 관한 척도는 연구 간에 차이가 있으므로 '권위 있는' 양육방식이라는 요인을 구성하는 세부항목이 동일하지 않은 것 또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상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식사지도방식 관련 연구들 간의 상이한 결과에 대하여 그 원인을 밝혀가는 것은 아마도 부모의 양육방식과 식사지도방식이 관련되어지는 양상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통찰력을 상승시

킬 것으로 사료된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 유의수준을  $p < 0.05$ 로 설정하였으나, 만약 이를 조금 완화시킨다면 기존의 양육방식 이론을 잘 반영하는 결과가 다수 발견된다. 가령, 초등학생에 있어 '권위주의적인' 방식을 채택할수록 '편식개선 노력'과 '바람직한 식행동 권장'의 경향이 낮았으며, 중학생에 있어 '허용적인' 방식은 '식품제한', '모니터링', '바람직한 식행동 보여주기', '편식개선 노력'을 하는 정도가 낮았다. 즉, '권위주의적인' 방식은 초등학생에서 더 부정적으로 관련되었으며 '허용적인' 양육방식은 중학생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식사지도방식과 연관되었다. 자녀가 어린이에서 청소년으로 이행하게 되면 부모는 일반적으로 자녀에 대한 통계의 수준을 다소 완화하여 청소년기로의 이행을 돕는 편이나(3), 통제수준이 매우 낮은 허용적 양육방식을 채택할 경우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바람직하지 못한 식사지도행위와 관련이 되므로 영양 및 건강 관련 전문가가 청소년을 위한 부모교육을 함에 있어 참고해야 할 결과들이라 사료된다.

어머니의 양육방식과 자녀의 식행동의 상관관계분석

Table 8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에 있어 양육방식 변수들(권위주의적인, 허용적인, 권위 있는)과 식행동 변수들(부모와 함께 식사, 혼자 식사, 건강에 유익한 식품 섭취빈도, 건강에 해로운 식품 섭취빈도)의 상관관계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권위주의적인' 방식을 사용할수록 초등학생의 '건강에 해로운 식품 섭취빈도'가 높았으며( $p < 0.001$ ), 중학생의 식품섭취와는 관련성이 낮았다. 한편, '허용적인' 방식을 택할수록 중학생이 '혼자식사'하거나 '건강에 해로운 식품 섭취빈도'가 높게 나타났고( $p < 0.05$ ), 초등학생의 식행동은 관련성이 없었다. 즉, 중학생 자녀가 자신이 잘못이 있어도 어머니가 처벌을 하지 못한다고 느낄수록 바람직하지 못한 식행동을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권위 있는' 양육방식은 초등학생과 중학생 모두 '건강에 유익한 식품'을 더 자주 섭취하게 하였으며( $p < 0.001$ ), 초등학생 자녀가 '부모와 함께 식사'하

Table 8.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perceived maternal parenting style and selected food behaviors for elementary schoolers and middle schoolers

Factors <sup>1)</sup>	Elementary schoolers (n=159, 9~11 years)				Middle schoolers (n=176, 13~15 years)			
	Eat with parents	Eat alone	Frequency of healthful food	Frequency of unhealthful food	Eat with parents	Eat alone	Frequency of healthful food	Frequency of unhealthful food
Authoritarian	-0.04 <sup>2)</sup>	0.19*	-0.06	0.27***	0.02	0.01	0.09	0.11
Permissive	-0.06	0.09	-0.11	0.01	-0.02	0.15*	-0.13	0.20*
Authoritative	0.40****	-0.16*	0.40****	<-0.01	0.14	-0.15	0.25***	-0.11

<sup>1)</sup>Authoritarian, permissive, and authoritative parenting styles. Eat with parents: average frequencies of child had meals with parents (breakfast with mom, breakfast with dad, dinner with mom, and dinner with dad during the past week), Eat alone: average frequencies of child had meals alone (breakfast ate alone and dinner ate alone during the past week), Frequency of original items for 'Eat with parents' and 'Eat alone' factors were asked and coded as 1: did not eat, 2: 1/week, 3: 2~3/week, 4: 4~5/week, 5: 6~7/week, during the past week. Frequency of healthful food: average of consumption frequencies of kimchi, vegetable side dishes, fruits, milk, fish, and 100% fruit juice, Frequency of unhealthful food: average of consumption frequencies of fast foods such as pizza, hamburger, and chicken fries, ramyun (fried Korean noodle), carbonated soft drinks, chips or cookies, frozen foods such as frozen pizza, hams including bacons and sausages. Frequency of original food items were coded as 1: did not eat, 2: 1~2/week, 3: 3~4/week, 4: 5~6/week, 5: 1/day, 6: twice/day, 7: equal to or more than 3/day, during the past week.

<sup>2)</sup>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 $p < 0.05$ , \*\*\* $p < 0.001$ , \*\*\*\* $p < 0.0001$ .

는 횡수를 높이고 ‘혼자식사’하는 횡수는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5$ ). 이와 같이 자녀의 연령은 부모의 양육방식과 관련되어질 때 서로 다른 양상을 나타내게 하는 중요한 인자로 생각되며, 부모의 양육방식이 자녀의 식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서는 유아기에서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연령별로 접근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종합적으로 본다면, 초등학생 및 중학생에서 가장 바람직한 양육방식으로 드러난 것은 ‘권위 있는’ 양육방식이었다. 한편, 초등학생과 중학생에서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양육방식은 각각 ‘권위주의적’인 방식과 ‘허용적’인 방식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방식이 자녀의 식습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보고된 사례를 살펴보면, Patrick 등(32)은 어린 자녀에 있어 권위 있는 양육방식은 유제품, 과일 및 채소의 섭취를 증가시키고 권위주의적 양육방식은 채소의 섭취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드러난 초등학생에서 양육방식과 식습관의 관계와 유사한 결과로 여겨진다. 한편, 부모의 양육방식의 차원은 환경적 요소로서 개입하여 부모의 식품섭취지도행위와 자녀의 식품섭취행동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하게 된다고 주장한 van der Horst 등(33)의 보고는 본 연구결과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하다. 부모가 청소년 자녀(평균 연령 13.5세)의 가당음료 섭취행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다양한 태도와 행위를 보일 때 ‘엄격함’의 수준이 두 번째로 높고, ‘참여수준’이 가장 높을 때 청소년이 소비하는 가당음료의 양이 가장 적었다고 보고하였다. 이 결과는 부모의 양육방식이 유아와 같은 저연령의 자녀가 아닌 청소년 자녀의 식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 예로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초등학생과 중학생에 대한 부모양육방식, 식사지도방식, 자녀의 식행동 간의 관련성과도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식사지도방식에 관련된 많은 연구들은 그 대상을 어린이집, 유치원 등과 같이 저연령 자녀의 부모에 한정하는 경향이 있었기에, 향후 연구자들은 부모의 식사지도방식이 자녀의 식행동과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으로 그 대상을 넓혀갈 필요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방식과 식사지도방식에 관한 차원을 도출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이란 여러 변인간의 관계성이나 패턴을 파악하고 변인들이 갖고 있는 정보를 잠재된 적은 수의 구조로 축약하거나 요약하기 위해 사용하는 통계기법으로(28) 최근 국내 영양학 연구에서도 요인분석법의 사용 범위가 확대되어 왔다(34,35). 현대인의 질병 양상은 복잡한 라이프스타일만큼이나 그 원인과 해결방안이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비만과 같은 생활습관병의 연구에 있어 환경적 요소를 체계적으로 분석한다거나 식품섭취에 있어 의미 있는 패턴을 도출하는 것은 연구의 질과 성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요인

분석의 장점과 특징을 잘 활용한다면 건강과 영양 관련 조사 연구의 결과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장점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식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모의 역할과 의미를 조명하기 위하여 부모의 양육방식과 식사지도방식이라는 개념을 영양학 연구에 도입하였다는 데 가장 큰 의의를 둘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방식과 식사지도방식의 차원 간에는 높은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주었고, 자녀의 연령에 따라 위의 개념들은 다르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한국 사회에서 부모와 자녀가 어떻게 소통하고 서로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지 탐구할 수 있는 유용한 척도의 개발을 장려함과 동시에 동·서양에서 제안되어온 교육 이론들을 우리문화권에서 재조명해볼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데 기여하였다고 본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일부 지역에 한정하여 수행된 연구이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영양학 관련 분야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부모양육방식과 식사지도방식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결과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들 수 있으며, 다양한 관점에서 후속연구가 이루어질 때 보다 의미 있는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끝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통한 건강한 삶의 지향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동안 간과해온 ‘부모’라는 요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좀 더 다양한 각도로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으며, 부모의 양육방식과 식사지도방식은 ‘한국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고려해 볼 때 아마도 많은 해결책과 미래지향적 비전을 제시할 블루오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요 약

요인분석을 이용하여 초등학생(4~6학년)과 중학생(2~3학년)이 인지하는 어머니의 양육방식과 식사지도방식에 관한 내재요인을 추출하고, 이들 요인들의 상호관련성 및 대상자들의 식행동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어머니 양육방식은 총 10개의 요인(합리적 지도, 애정과 참여, 성취격려 및 기대, 일관성 있는 규제, 비난과 성냄, 과보호, 감정적 처벌, 육체적 처벌, 자녀가 좋아하는 것을 못하게 함으로써 처벌 및 처벌을 못함)으로 추출되었고, 2차 요인분석을 통하여 이들 10 요인은 3 양육방식(권위주의적, 허용적 및 권위 있는)으로 축약되었다. 어머니의 식사지도방식은 총 8개의 요인(식사량 조절, 식품제한, 섭취강요, 모니터링, 바람직하지 않은 식행동 보여주지 않기, 바람직한 식행동 보여주지 않기, 편식 교정 교육, 바람직한 식행동 권장)으로 추출되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식행동 비교 결과, 중학생들은 초등학생에 비해 ‘부모와 함께 식사’하는 빈도가 낮으며 ‘건강에 유익한

식품 섭취빈도'는 낮고 '건강에 해로운 식품 섭취빈도'는 높았다. '권위주의적인' 방식을 택할수록 '섭취강요' 및 '바람직하지 않은 식행동 보여주기' 경향이 높았고 이러한 관련성은 초등학생에서 더 높았다. '허용적인' 방식을 택할수록 '올바른 식습관 권장'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권위 있는' 방식은 초등학생과 중학생 모두 '바람직하지 않은 식행동 보여주기'를 제외한 모든 식사지도방식 요인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p < 0.0001$ ), '편식개선 노력'과 '바람직한 식행동 권장' 점수가 가장 높았다. '권위주의적인' 방식일수록 초등학생의 '건강에 해로운 식품 섭취빈도'가 높았고( $p < 0.001$ ), '허용적인' 방식일수록 중학생의 '혼자식사' 및 '건강에 해로운 식품 섭취빈도'가 높았다. '권위 있는' 방식을 택할수록 초등학생과 중학생 모두 '건강에 유의한 식품 섭취빈도'가 높았다( $p < 0.001$ ). 또 '권위 있는' 방식은 초등학생이 '부모와 함께 식사'하는 횟수는 높고 '혼자 식사'하는 횟수는 낮았으며 중학생에서는 관련성이 없었다. 이상에서 볼 때, 어머니의 양육방식과 차원, 식사지도방식의 차원들은 상호 관련성이 높으며, 어머니의 '권위 있는' 양육방식은 초등학생 및 중학생에서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양육방식은 각각 '권위주의적인' 방식과 '허용적인' 방식으로 나타났고, 어머니의 양육방식은 자녀의 연령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08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 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 으며(KRF-2008-532-C00042) 이에 감사드립니다.

### 문 헌

- Baumrind D. 1966. The effects of authoritative parental control on child behavior. *Child Dev* 37: 887-907.
- Baumrind D. 1967. Childcare practices anteceding three patterns of preschool behavior. *Genetic Psychology Monographs* 75: 43-88.
- Baumrind D. 1991. The influence of parenting style on adolescent competence and substance use. *J Early Adolescence* 11: 56-95.
- Robinson CC, Mandlco B, Olsen SF, Hart CH. 1995. Authoritative, authoritarian and permissive parenting practices: development of a new measure. *Psychol Rep* 77: 819-830.
- Huver RM, Otten R, de Vries H, Engels RC. 2010. Personality and parenting style in parents of adolescents. *J Adolesc* 33: 395-402.
- Hong YR. 2009. Effects of child-rearing attitude and parent-school age communication on self-efficacy of school-age children. *J Kor Acad Child Health Nurs* 15: 392-400.
- Lee CS, Hyun EJ. 2008. Relationships among children's temperament, social competence, emotional intelligence, morality, parents' child rearing attitudes and children's behavior problem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9: 223-238.
- Son NS, Lee SH. 2008. Effects of the parenting attitude on children's social abilities from age 4 to age 6. *The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15: 49-77.
- Kremers SPJ, Brug J, de Vries H, Engels RCME. 2003. Parenting style and adolescent fruit consumption. *Appetite* 41: 43-50.
- Schmitz KH, Lytle LA, Phullips GA, Murray DM, Birnbaum AS, Kubik MY. 2002. Psychosocial correlates of physical activity and sedentary leisure habits in young adolescents: the teens eating for energy and nutrition at school study. *Prev Med* 34: 266-278.
- Golan M, Crow S. 2004. Parents play key players in the prevention and treatment of weight-related problems. *Nutr Rev* 62: 39-62.
- Regber S, Marild S. 2005. Parenting styles and treatment of adolescents with obesity. *Acta Paediatr* 94(Suppl. 448): 49-49.
- Berge JM, Wall M, Neumark-Sztainer D, Larson N, Story M. 2010. Parenting style and family meals: cross-sectional and 5-year longitudinal associations. *J Am Diet Assoc* 110: 1036-1042.
- Park SY. 1989. A study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mothers' parenting style scale I. Annual Symposium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 Park SY, Lee S. 1990. A preliminary study for the standardization of the 'Korean Maternal Behavior Inventory'.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28: 141-156.
- Lee S. 1991. A study on the validation of the 'Korean Maternal Behavior Inventory'.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29: 189-201.
- Cho BH, Lee JS, Kwon HK. 1999. Dimensions and assessment of Korean parenting style.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7: 123-133.
- Lee JM, Kim JK. 2010. The effects of children's sex, age and parental feeding styles on children's self-help skills. *Journal of the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8: 37-49.
- Birch LL, Fisher J. 1995. Appetite and eating behavior in children. *Pediatr Clin North Am* 42: 931-953.
- Birch LL. 1999. Development of food preferences. *Annu Rev Nutr* 19: 41-62.
- Birch LL, Fisher JO. 2000. Mother's child-feeding practices influence daughter's eating and weight. *Am J Clin Nutr* 71: 1054-1061.
- Birch LL, Fisher JO, Grimm-Thomas K, Markey CN, Sawyer R, Johnson SL. 2001.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the child feeding questionnaire: A measure of parental attitudes, beliefs and practices about child feeding and obesity proneness. *Appetite* 36: 201-210.
- Hubbs-Tait L, Kennedy TS, Page MC, Topham GL, Harrist AW. 2008. Parental feeding practices predict authoritative, authoritarian, and permissive parenting styles. *J Am Diet Assoc* 108: 1154-1161.
- Blissett J, Haycraft E. 2008. Are parenting style and controlling feeding practices related? *Appetite* 50: 477-485.
- Hughes SO, Power TG, Fisher JO, Mueller S, Nicklas TA. 2005. Revisiting a neglected construct: parenting styles in a child-feeding context. *Appetite* 44: 83-92.
- Kim KN, Mo SM. 1976. A study of children's dietary habits, focusing on parental influences. *Korean J Nutr* 9: 25-42.
- Kim MJ. 2006. Parenting style and older children's and

- young adolescents' dietary intake and nutritional status. *Dissertation*. Texas A&M University, College Station, TX, USA. p 465-469.
28. De Winter JCF, Dodou D, Wieringa PA. 2009. Exploratory factor analysis with small sample sizes. *Multivar Behav Res* 44: 147-181.
  29. Lee Y, Lee KW, Oh YJ. 2009. The perceptions and attitudes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towards family meals. *J Korean Diet Assoc* 15: 41-51.
  30. Paulson SE, Sputa CL. 1996. Patterns of parenting during adolescence: perceptions of adolescents and parents. *Adolescence* 31: 369-381.
  31. Cohen DA, Rice J. 1997. Parenting styles, adolescent substance use, and academic achievement. *J Drug Educ* 27: 199-211.
  32. Patrick H, Nicklas TA, Hughes SO, Morales M. 2005. The benefits of authoritative feeding style: caregiver feeding styles and children's food consumption patterns. *Appetite* 44: 243-249.
  33. van der Horst K, Kremers S, Ferreira I, Singh A, Oenema A, Brug J. 2007. Perceived parenting style and practices and the consumption of sugar-sweetened beverages by adolescents. *Health Educ Res* 22: 295-304.
  34. Kim YO. 2009. Dietary patterns associated with hypertension among Korean males. *Nutr Res Pract* 3: 162-166.
  35. Song Y, Paik H, Joung H. 2009. A comparison of cluster and factor analysis to derive dietary patterns in Korean adults using data from the 2005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orean J Community Nutr* 14: 722-733.

(2011년 1월 20일 접수; 2011년 3월 15일 채택)